



## 태국 '심청전' 베트남 '콩쥐팥쥐' 문화 다르지만 함께 살라하네

### '큰나무공동체' 4권 출간

중국 사람들은 왜 붉은 색을 좋아할까? 태국에도 '심청전', '콩쥐팥쥐'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네?

전현직 교사 등이 모여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돕는 큰나무공동체가 다문화 전래 동화책을 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그림 동화책은 일본 전래 동화 '은혜 같은 학 이야기', 중국의 '괴물연 이야기', 태국의 '금망둥어', 베트남의 '땀 앤 감' 4권이다.

동화책은 한글과 각 나라 언어 이중언어로 표기했다. 엄마 나라 언어로 읽어주는 책은 아이들의 감정입을 돕는다.

번역 작업과 아름다운 색깔의 삽화는 지역 번역가와 삽화작가들이 모두 재능기부했다. 번역에는 육동희 호남대 외래교수와 조중학교 교사 이미경, 이주여성 김소령씨 등이, 삽화 작업에는 박서용, 문민정, 최호진, 김아람씨가 참여했다.

이번 책 발간은 다문화 가족 2세들에게 엄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일반 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해 좀 더 친근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 한글·엄마나라 말 이중 표기

### 번역·삽화작가 모두 재능기부

###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도 발매

책을 낸 또 다른 이유는 '다문화를 다른 문화'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서였다. 동화책을 읽다 보면 한국의 전래동화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다. 또 외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도 의미가 있다.

태국의 '금망둥어'는 우리나라 '콩쥐팥쥐'와 '심청전'을 섞어놓은 이야기다. '땀 앤 감 이야기'는 '콩쥐팥쥐'와 비슷하다. 중국 동화책 '괴물연 이야기'를 보면 왜 중국 사람들이 폭죽 터트리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이번 그림책은 종이책 뿐 아니라 전자책으로도 발매됐다. 예스 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삽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작업도 진행중이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 필름에이지와 함께 제작을 마치고 이번달 안에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그밖에 원화 전시

회(11월2일~20일 광주시청지미디어센터)와 동화구연 행사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 선정, '다문화 엄마들의 행복찾기, 엄마 꽃이 되다'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출판된 동화책을 활용해 일반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행사도 개최한다. 율동과 함께 동화구연가가 한국어로 전래동화를 읽어주고, 빛그림을 활용해 이주 여성이 직접 원어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기획이다.

한편 큰나무공동체는 각국 도서관도 꾸민 오색종이 작은 도서관도 운영중이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와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주여성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친다.

김기현 큰나무 공동체 소장은 "엄마들의 한글 능력이 부족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엄마 나라 언어로 만날 수 있는 동화책을 함께 읽으면서 엄마와 좀 더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www.ecobigtreet.com)나 전화로 연락하면 책을 무료로 배송해준다. 문의 062-228-01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예술품으로 변신한 폐품... '잉여의 쓰임'展

### 광주 롯데갤러리 11월 10일까지 도시재생 기획전시

광주 롯데갤러리가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잉여의 쓰임'전을 11월 10일까지 개최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동구지역 내 잉여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디자인 작품을 선보인다. '업사이클링(업그레이드+리사이클링)'은 폐품을 단순히 '리사이클링(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심미성과 실용성을 고려,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 전시는 크게 세가지 섹션으로 이뤄진다. 첫번째는 지역 내 목공, 섬유 예술가들의 폐목재 및 버려진 섬유를 활용한 디자인 공예전이며 김영민, 신성창, 이치현, 한우석, 김효진 작가가 참여한다. 두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관련 디자인 컨셉전으로 금오공대 김선아 교수와 박준홍, 박해림, 임영빈 등이 참여, 생활 속 리사이클링의 사례를 제시한다. 세번째는 동구 청소년 도시재생활동가 그룹인 '트렁크 톨 에이저'의 잉여자원 리서치 사진전이다. 또 백화점 내 1층에 'Art&Design Floor' 라는 주제로 폐목재를 활용한 한우석 작가의 작품이 설치된다.



페넨단과 조명을 활용한 성소라 작가의 조명용품.

또 24일 '잉여 섬유를 활용한 라이프 트랜즈 개발', 31일 '잉여 목재를 활용한 잉여자원의 도구적 쓰임'을 주제로 디자인 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21-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남중화 화맥 잇는 허진 교수 '선조들과의 대화'



'유목동물+인간-문명' 시리즈

### 남중 허진 장손... 21~27일 서울 아라아트센터서 25번째 개인전

남중화의 원류인 소치 허련의 증손이자 남중 허건의 장손으로 윤림산방의 화맥을 5대째 잇고 있는 허진 전담대교수가 선조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허 교수는 서울 아라아트센터에서 21~27일 '유목과 순환'을 주제로 25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처음으로 남중의 '소나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품과 허련, 허건, 자신의 초상화를 선보인다. 허 교수는 "젊었을 때 나와는 상관없다고 부정했던 선조들의 화업이 나이 들면서 더 좋아지고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허 교수가 1988년부터 지금까지 창작해온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3층 전시실에서는 '묵시', '유전', '다중인간', '현대인의 자화상', '익명인간' 등 그동안 선보인 시리즈 중 대표작 20여점이 출품됐다.

4층에서는 '유목동물+인간-문명', '이중용합동물+유토피아' 시리즈 등 최근 2~3년 간의 신작 20여점을 전시한다. 자연생태계의 역동적 야생동물 묘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서울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허 교수는 6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25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문의 02-733-1984. /김용희기자 kimyh@

## '그대와 함께하는 가을'

문화예술협회 26일 가을 음악회  
서구 풍암동 마을카페 '짜목짜목'

시)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는 가을 음악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서구 풍암동 협동조합 마을카페 '짜목짜목'에서 열린다.

'그대와 함께하는 가을'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트럼펫 연주자 이유신의 'Misty'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권경락이 보케리니의 '미뉴에트'와 '월야대표아적심(月夜代表我的心)'을 들려주며 테너 최교성과 소프라노 박성경이 '꽃밭에서', '신아리랑', '나는 나만의 것',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어느 10월의 멋진 날에' 등을 선사한다. www.artgj.co.kr. 문의 062-384-2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프랑스가구 런칭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